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영양성분 그대로 담아
니



Life

CJ그룹
'더 CJ컵' 준비 만전
K-푸드 세계화
L2



왕십리 입체도시, 북한산 천문대... 강북 '전성시대' 열린다

성산로·왕십리·북한산·중랑천·노해로 강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대상지 선정 일자리·문화공간 조성해 균형발전

서울시는 강북권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신속추진사업은 ▲성산로 일대 입체 복합개발(서대문구, 3만451㎡)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 도시 조성(성동구, 약3만㎡)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강북구, 1만5635㎡)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동대문구, 2만6000㎡) ▲노해로 문화 리노베이션(노원구 1만5750㎡) 등 5건이다.



서울시가 강북권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을 선정했다. 사진은 강북구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계획안. /서울시

첫 번째 선정 사업은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이다. 성산로 일대는 인근에 대학이 위치해 풍부한 인적자원은 물론 도시철도 서부선 개통에 따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는 지하·지상 공간이 단절

되어 있고 상권도 침체해 지역 활력이 저하된 상태.

시는 이 성산로 일대를 지하와 지상을 입체 복합개발하는 형태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서부선 역사와 지하공간을 연결해 청년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세브란스병원 주변 등은 연구·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의료복합산업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킨다.

4개 노선이 지나는 '성동구 왕십리의 입체 도시 조성'에는 성동지하차도의 차량 통행을 폐쇄하고 상부 고산자로 차선을 늘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든다. 차량 통행을 막은 성동지하차도를 상업·업무 등 복합생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이다. 경찰서, 구청 등도 한 곳으로 이전해 왕십리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북구 북한산 중턱 시민천문대 건립'을 통해서도 동북권 문화·관광 거점이자 주야간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해 5월 의무경찰대 이전 후 현재 비어있는 공간으로 주변에 인공조명이 적고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빛이 없어 서울 내에서는 천문

대를 건립하기 좋은 위치다.

하천과 동부간선도로로 인한 지역단절로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됐던 중랑천변 동대문구 휘경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공원으로 복합개발된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노해로를 총 7차로에서 4차로로 줄여 보행 구간을 확대해 열린 문화광장으로 리노베이션한다. 노원역 주변은 금융권, 쇼핑 등 상권이 밀집돼 있으나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노해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동북권 문화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5개 신속추진사업은 사업별 기본구상과 실행계획 관련 용역을 올해 안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이 도출되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단기 집중교육 육성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재양성 참여대학 32개교 공모 선정 대학에 5년간 연평균 15억 지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이 기업과 협업체계로 첨단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반도체 분야에서 10개 대학이 161개 기업과 협업체계로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에는 지원 분야를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이차전지 ▲차

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산업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지원 대학도 32개교 추가 선정한다. 분야별로 전문대를 최소 1개 이상 포함시킬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과 전문대학은 연간 평균 15억원 내외의 예산을 5년간 지원받아 기업과 함께 직무 분석에 기반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게 된다.

또한 기업과 공공연구실, 지자체 시설 등 대학 인력의 자원을 활용해 집중 이수제, 거꾸로 수업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며 각 첨단산업에 진출할 인재를 100~300명 규모로 양성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업과 긴밀히 소통·협업할 수 있도록 다수 기업을 회원

사로 보유한 산업별 협회·단체를 협업 기관으로 지정해 기업 섭외, 몰입형 교육과정 위탁 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사업 준비 단계부터 운영까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참여대학을 선정하고, 여름 계절학기부터 대학에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고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학교 학사일정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서울교육청, '우리학교 학사일정' QR코드 스캔해 간편 확인 가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주요 학사일정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우리학교 학사일정' 서비스를 개발해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에게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학사일정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학사일정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경로를 찾아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우리학교 학사일정' 서비스를 통해서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 방학일, 개학일, 시험일 등 주요 학사일정 데이터를 모바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를 선택한 뒤 학교급과 학교를 선택하면 이번달 학사일정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학사일정 보기'를 선택하면 2024학년도 주요 학사일정을 모두 볼 수 있다.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학교를 선택해 한번에 확인할 수도 있다.

'우리학교 학사일정'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서울교육시각화시스템에 접속해 '우리학교 학사일정'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시티투어 버스 타고 '파주 일주' 떠나요"

파주시, 요일별 시티투어버스 운영

파주시는 대표 관광지를 권역별로 연계한 '파주시티투어' 버스를 2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티투어'는 파주의 역사·문화·자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요일별로 다르게 운행하며, 요일별 노선은

모두 이용하면 파주일주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일로 운행되는 정기코스와 주말에 1박 2일로 운행되는 핵심관광코스가 운행된다. 모든 노선은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며, 재미있는 해설로 파주의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기코스의 경우 관광객이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요일별 특색을 뒀다. 2023년 코스공모전을 통해 MZ세대에게 인기 있었던 노선으로 금요일 코스를 구성했으며, 화요일에는 울곡수목원의 대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특히,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는 공간인 6.25납북자 기념관을 토요일 코스에 새롭게 추가해 평화관광의 의미를 더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5 | 해질 / 18:57

4월 3일 (수)
음력 : 2월 25일

수도권 날씨
12 ~ 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6/22
- 동두천 8/22
- 가평 6/22
- 파주 7/21
- 서울 12/20
- 양평 10/19
- 인천 11/19
- 수원 13/20
- 용인 13/20
- 평택 12/17
- 백령도 9/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쌍둥이 감독 모두 이긴다" · "시원하게 도전" · 프로농구 PO 감독 출사표
▲ "우승 후보" KT가 어찌다 · 믿었던 선발 무너지고 최하위 추락 /사진 뉴시스

▲ 손흥민, 득점 공동 5위 보연과 맞대결 · 웨스트햄전서 연속골 도전
▲ '4개월 만에 필드골' 조규성, 11호골로 리그 득점 선두



▲ 김효주, LPGA 포드 챔피언십 3R 1위 · 올해 첫 우승 보인다 /사진 뉴시스
▲ KLPGA, 창립 46년 만에 첫 사옥 마련 · "女골프 역사 써 내려가길"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